

24-12(통권 970호) 2024.07.23

# 경제주평

■ 국내 소비 여건 점검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목 차

---

## ■ 국내 소비 여건 점검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소비 여건 점검 .....	2
3. 시사점 .....	12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국내 소비 여건 점검과 시사점

#### ■ 개 요

국내 민간소비 부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기여도도 약화되는 등 소비 회복 지연이 향후 경기 회복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1분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 상반기까지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2023년 하반기에는 0%대로 하락하였고 올해 1분기에도 1.0%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p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투자와 고용, 소득과 부채, 물가와 금리, 자산효과 등 국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여건들에 대해 살펴본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소비 여건 점검

##### ① 투자와 고용

(투자) 건설 및 설비투자 실적 및 선행지표가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업황 전망도 둔화되면서 투자 회복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기성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수주도 부진하다. 전년동월비 기준 건설기성 증감률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5월에는 다시 대폭적인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동행 및 선행지표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올해 5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전기비로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역시 올해 3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5월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최근 국내 기업들의 업황 실적 및 전망도 재둔화되면서 투자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업황 실적 BSI는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제조업은 올해 6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업황 전망 BSI 역시, 올해 7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 반전하였다.

(고용)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주력 소비 연령층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국내 고용 여건 전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 역시 3% 전후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업자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주력 소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제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24년 1, 2분기에 각각 29.4만명, 14.6만명으로 이는 2023년 1, 2분기에 비해 각각 10.3만명, 20.0만명 축소된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주력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15~29세), 40~49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에는 50~59세 취업자 증가 규모도 축소되었다. 산업별로도 제조업 취업자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은 미흡하다 할 수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 ② 소득과 부채

**(소득) 가계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소득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명목 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실질 소득 증가율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가계의 체감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하였다. 2024년 1분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명목 기준 1.4% 증가하며 전 분기(3.5%) 대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였으며, 실질 기준으로는 -1.6%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인 저소득 분위의 소득이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계수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대되는 등 개선 가능성이 전망된다. 전체 가계의 소득 감소는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향후 경기 반등이 기대되면서 가계수입전망CSI가 상승한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부채) 이자비용과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되면서 향후 상환 부담 가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한때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던 국내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재전환되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4년 1분기 기준 1.6%를 기록하였으며,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5월 현재 4.5%까지 증가율이 확대되었다. 또한, 가계의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향후 부채 증가세 확대로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과 그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4년 1분기 가계 이자비용은 전년동기비 11.2% 증가한 가운데 연체율은 2016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인 0.4%를 9개월째 지속 중이다.

## ③ 물가와 금리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이는 한편,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2024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기준 2.4%까지 하향 안정화하며 둔화세를 보였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등 소비자 생활과 관련 높은 품목의 상승세 확대로 생활물가는 6월 2.8%를 기록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고환율 및 고유가에 따라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의 상방 압력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4년 중동 전쟁 등으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이 각각 6월 9.7%, 5월 2.3%를 기록하며 크게 확대되었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는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 통화 긴축 기조 하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가 장기화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기조가 본격화한 2022년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CD(92일물) 금리는 2022년 12월 중 4.02%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소폭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2024년 6월 현재 3.6% 수준에서 금리가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하반기 이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은 물가 안정 등 여건상 미국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크게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4분기 이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11월 미 대선이 예정되어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나, 늦어도 내년 초 이내에는 금리인하 기조로의 선회가 전망되고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는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자산효과

**(부동산자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자산의 가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최근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 매매거래량의 증가세,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가계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기대된다. 다만, 낮은 유동성, 장기 투자 목적 등의 부동산자산 특징상 부동산자산 가치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금융자산) 올해 금융자산 중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의 수익 실현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국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외화주식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⑤ 종합평가

올해 국내 소비 여건 중 소득과 금리 및 금융자산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투자와 부채 및 물가 등 부정적인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lt; 국내 소비 여건 종합평가 &gt;

구분	종합평가		
	주요 내용	평가	
① 투자와 고용	건설투자	건설기성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수주도 부진해 건설투자 전반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부정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동행 및 선행지표(국내기계수주) 모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개선 기대감도 약함	부정
	고용	실업률과 고용률 등 전반적인 여건은 양호하나, 취업자 증가 규모 축소와 주력 소비층의 일자리 축소 등 소비 확대 효과 기대감은 크지 않음	중립
② 소득과 부채	소득	가계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소득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	긍정
	부채	이자비용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도 재확대되면서 향후 고수준의 상환 부담 유지 가능성이 큼	부정
③ 물가와 금리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이는 한편,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	부정
	금리	통화 긴축기조 하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가 장기화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 본격화 기대	긍정
④ 자산효과	부동산 자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자산의 가치 상승이 전망	중립
	금융자산	올해 금융자산 중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기대	긍정

## ■ 시사점

현재 국내 소비 여건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상존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소비 부진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하반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주체의 기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예방책과 더불어 설비투자 촉진 유인 확충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 해외 투자 유입을 가속시키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각종 가격지표의 안정화 등을 통한 실질 구매력 확충은 물론 소득과 부채의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민간소비가 하반기 경기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 등을 통해 부(負)의 자산효과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건전한 기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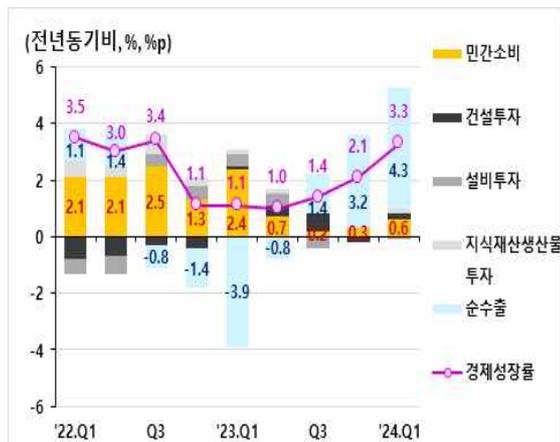
- 국내 민간소비 부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기여도도 약화되는 등 소비 회복 지연이 향후 경기 회복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민간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1분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 상반기까지 회복세가 지속
    - 하지만, 2023년 하반기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기준 0%대로 하락하였고, 올해 1분기에도 1.0% 증가에 그쳤음
  - 이로 인해,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p대에 머물고 있음
    -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전년동기비 기준 2023년 1분기 2.4%p를 기록한 후 2분기 0.7%p, 3분기 0.2%p, 4분기 0.3%p로 0%p대를 보였으며, 올해 1분기에도 0.6%p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이에 본고에서는 투자와 고용, 소득과 부채, 물가와 금리, 자산효과 등 국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여건들에 대해 살펴본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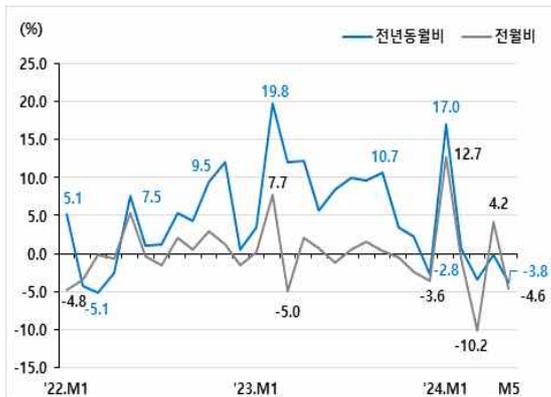
## 2. 소비 여건 점검

### ① 투자와 고용

○ (투자) 건설 및 설비투자 실적 및 선행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 업황 전망도 둔화되면서 투자 회복 지연 가능성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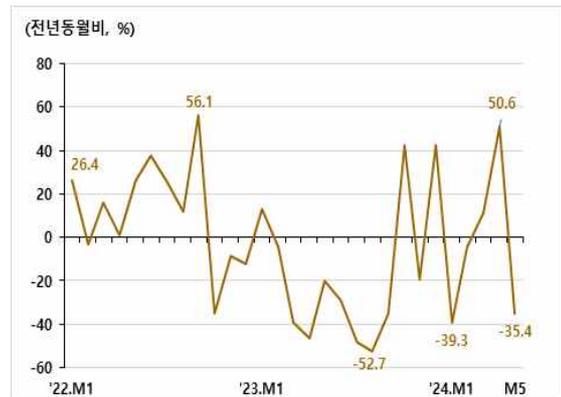
-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기성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수주도 부진
  - 전년동월비 기준 건설기성 증감률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5월에 다시 대폭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불변 기준.

<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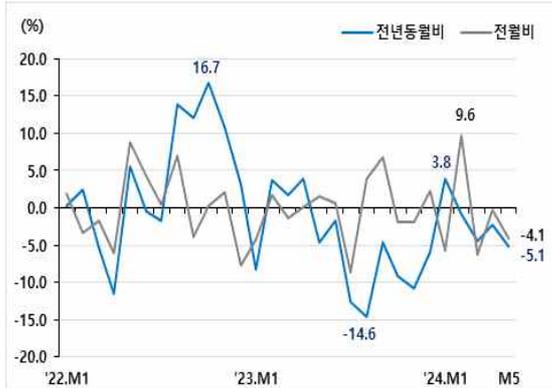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경상 기준.

- 설비투자 역시 동행 및 선행지표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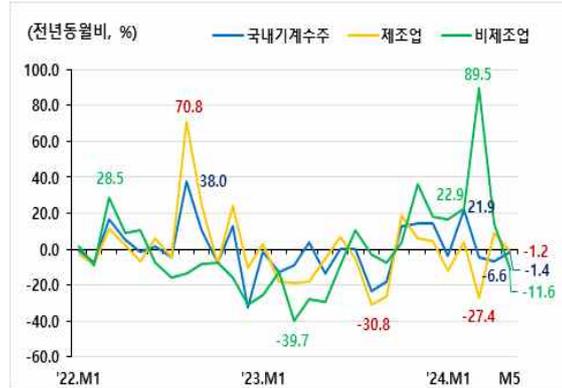
-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올해 5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전기비로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역시 올해 3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 중이며, 5월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 전환

< 설비투자지수 증감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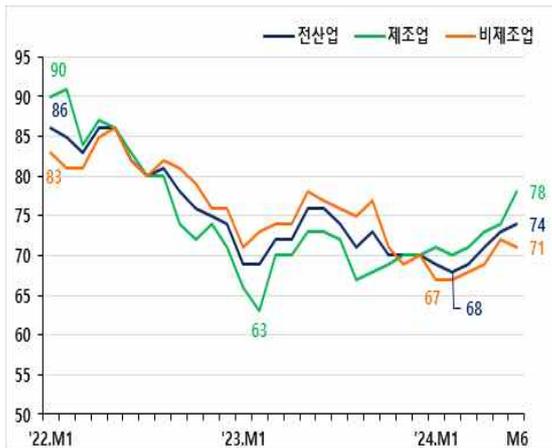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한편, 최근 국내 기업들의 업황 실적 및 전망도 재둔화되면서 투자 여건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업황 실적 BSI는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제조업은 올해 6월 하락세로 전환
- 업황 전망 BSI 역시, 올해 7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 반전

< 업황 실적 BS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업황 전망 BS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고용)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주 소비 연령층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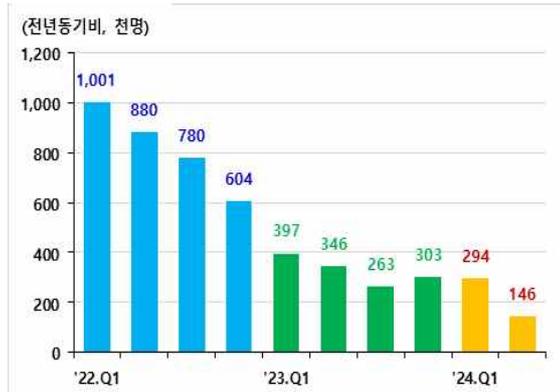
- 고용률과 실업률 등 국내 고용 여건 전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개선
  - 15세 이상 고용률은 60% 이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 역시 3% 전후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15세 이상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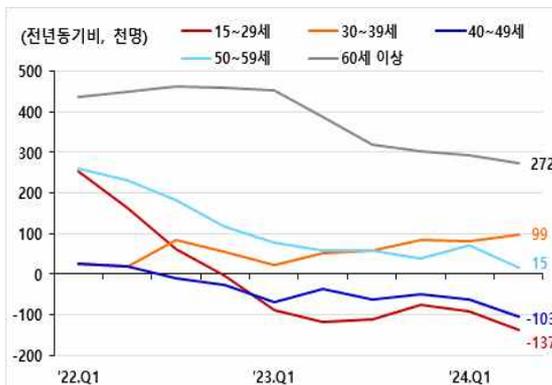
< 전체 취업자 증감 추이 >



자료 : 통계청.

- 다만, 취업자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주력 소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제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은 미흡
  -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24년 1, 2분기 각각 29.4만명, 14.6만명으로 이는 2023년 1, 2분기에 비해 각각 10.3만명, 20.0만명 축소된 규모
  - 연령대별로는 주력 소비층인 청년층(15~29세), 40~49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에는 50~59세 취업자 증가 규모도 축소
  - 산업별로도 제조업 취업자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력은 미흡하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

<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자료 : 통계청.

<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자료 : 통계청.

② 소득과 부채

○ (소득) 가계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소득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

- 명목 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실질 소득 증가율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가계의 체감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

· 2024년 1분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명목 기준 1.4% 증가하며 전 분기(3.5%) 대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였으며, 실질 기준으로는 -1.6%의 감소세를 기록

· 이는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명목 기준으로 둔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도 대폭 악화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실질적 소득 회복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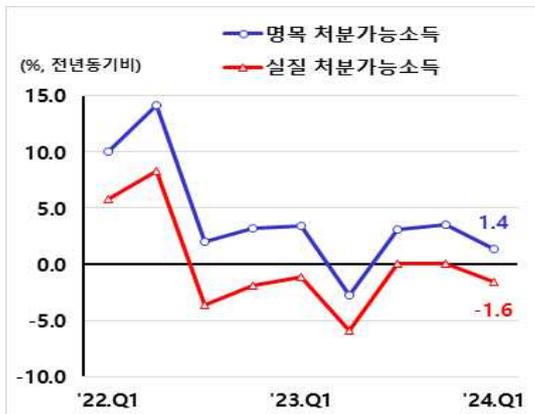
- 한편,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인 저소득 분위의 소득이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계수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확대되는 등 개선 가능성이 전망

· 전체 가계의 소득 감소는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를 기록

· 또한, 향후 경기 반등이 기대되면서 가계수입전망CSI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의 소득 개선 기대감이 확대된 점도 긍정적인 상황

※ 가계수입전망CSI(p): ('24.M1) 100 → (M3) 99 → (M5) 97 → (M6) 99

< 가계 경상소득 증가율 추이 > <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2024년 1분기) >



자료 : 통계청.  
주 : 전국, 1인 이상 기준.

소득분위	명목	실질
1분위	11.2	8.0
2분위	4.1	1.1
3분위	4.9	1.9
4분위	2.8	-0.2
5분위	-2.3	-5.1

자료 : 통계청.  
주 : 전국, 1인 이상 기준.

○ (부채) 이자비용과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 되면서 향후 상환 부담 가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고금리 등의 여파로 한때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던 국내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재전환

·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비)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023년 3분기 증가세(0.3%)로 재전환되었으며 2024년 1분기 기준 1.6%까지 증가율이 확대

· 특히,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3.2%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5월 현재 4.5%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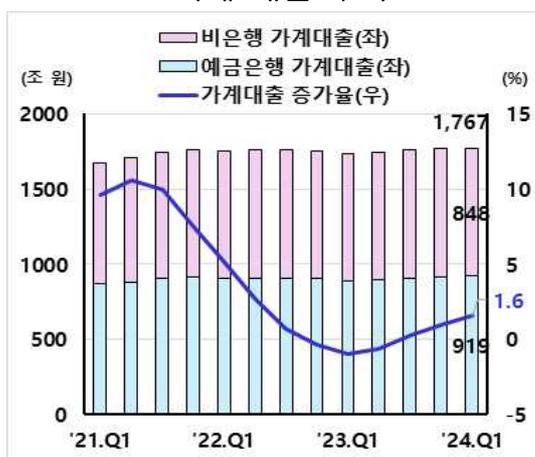
※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비): ('24.M1) 2.4 → (M3) 3.2 → (M5) 4.5

- 가계의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향후 부채 증가세 확대로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과 그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2024년 1분기 월 평균 137,598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행대출금 기준)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 현재까지 0.4% 수준을 지속 중이며, 이는 2016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임

< 가계 대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 주 2) 비은행 가계 대출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합.

< 가계 이자비용 추이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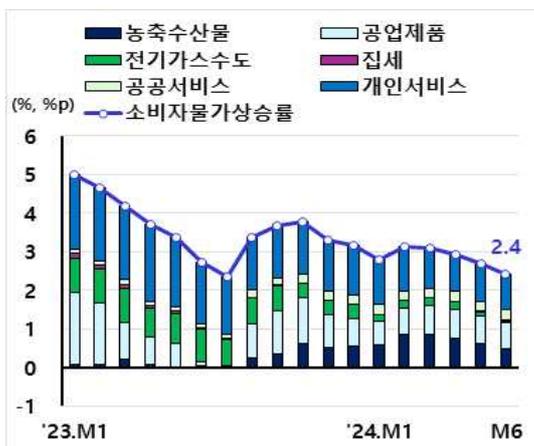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 ③ 물가와 금리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이는 한편,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

- 2024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세를 보이나, 농축수산물 등 소비자 생활과 관련 높은 품목의 상승세 확대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3월(3.1%)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6월 기준 2.4%까지 하향 안정화
  -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0.5%p), 공업제품(0.7%p), 개인서비스(0.9%p)가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이에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6월 생활물가상승률은 2.8%로 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
- 한편, 고환율 및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
  - 2024년 들어 중동 전쟁 등으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확대
    - ※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 원): ('24.M1) 1,326 → (M6) 1,380 → (M7.19.) 1,387
    - ※ Dubai 유가(기간 평균, \$/bbl.): ('24.M1) 78.9 → (M6) 82.6 → (M7.19.) 84.5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 생산자·수입 물가상승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 (금리) 통화 긴축기조 하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가 장기화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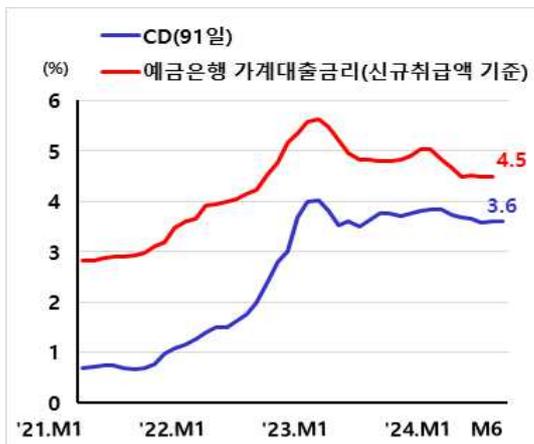
- 국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기조가 본격화한 2022년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

- CD(91일 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이후 높은 상승세를 지속 하여 2022년 12월 중 4.02%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소폭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2024년 6월 현재 3.6%의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고착화되는 모습
- 가계대출금리 또한 2022년 12월 5.6%까지 치솟았으며, 2024년 6월 현재도 4.5%로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 중인 상황

- 한편, 하반기 이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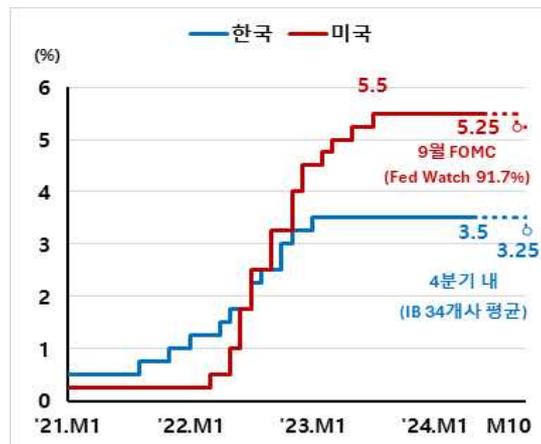
- 미국이 2023년 8월 이후 2024년 7월 현재까지 약 11개월째 5.5%(상단기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은 물가 안정 등 여건상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4분기 이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 한편, 11월 미 대선이 예정된 바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나, 늦어도 연초 이내에는 금리인하 기조로의 선회가 전망되고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는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시장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주 : Fed Watch는 7월 22일 기준.

④ 자산효과

○ (부동산자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자산의 가치 상승이 전망

- 최근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 2024년 6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월대비)은 0.04%로 7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이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지방권과 달리 수도권이 0.19% 상승한 영향으로 향후에도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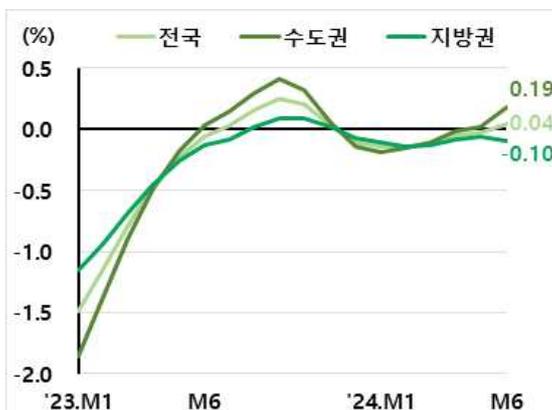
- 주택 매매거래량의 증가세,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됨

- 2024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7,436호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
- 주택 매매수급지수 또한 상승을 지속하여 매도와 매수 문의가 비슷함을 의미하는 균형 지점(100p)에 근접
- ※ 매매수급지수(p): ('24.M2) 87.6 → (M3) 88.3 → (M4) 89.4 → (M5) 90.7 → (M6) 92.0

- 가계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sup>1)</sup>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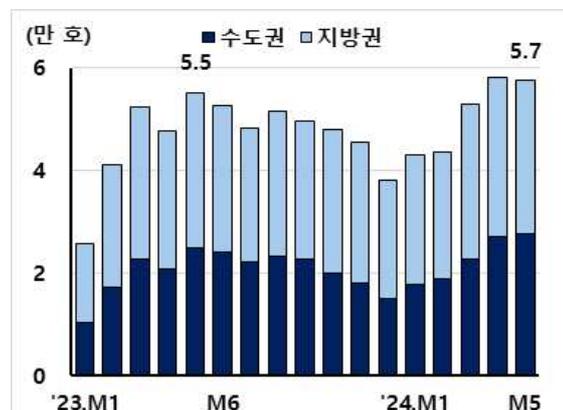
- 다만, 낮은 유동성, 장기 투자 목적 등의 부동산자산 특징상 부동산자산 가치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 : 전월대비 기준.

< 주택 매매거래량 >



자료 : 한국부동산원.

1) 2023년 기준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비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약 65.2%를 차지하며, 그중 약 98.3%는 부동산자산(건설 및 토지자산)인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 올해 금융자산 중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기대

- 2023년 기준 지분증권·투자펀드는 가계의 금융자산 중 약 21.7%를 차지

< 가계 금융자산 구성(2023년) >

구분	현금·예금	보험·연금 준비금	채권	지분증권· 투자펀드	파생금융 상품	기타	합계
규모(조 원)	2,411	1,458	167	1,128	5	36	5,204
비중(%)	46.3	28.0	3.2	21.7	0.1	0.7	100

자료 : 한국은행.

주 : 비영리단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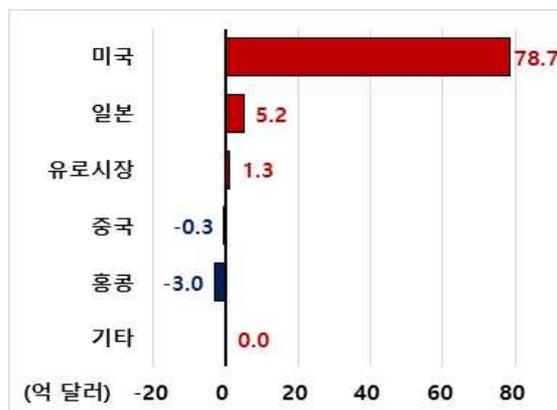
-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의 수익 실현 가능성이 확대

- 2024년 6월 코스피는 2023년 12월 대비 7.6% 상승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에는 약 2년 반 만에 최고치(2,891.35p)를 기록
- 코스닥도 같은 기간 1.6% 상승하며 개인투자자의 수익 실현이 기대

- 국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외화주식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올해 상반기 외화주식 투자(순매수)는 약 81.7억 달러로 미국으로의 투자(78.7억 달러)가 특히 두드러짐
- 미국, 일본 등의 주식시장 상승률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가운데 가계의 금융자산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증가가 기대됨

< 국내 외화주식 투자(순매수)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주 : 2024년 1~6월 누적 결제금액 기준.

< 주요 주가지수 상승률 >

(단위: p, %)

구분	'23.12	'24.6	상승률
코스피	2,554	2,748	7.6
코스닥	841	855	1.6
미국 S&P500	4,685	5,415	15.6
유로스톡스 50	4,509	4,952	9.8
일본 니케이225	33,118	38,859	17.3
중국 상해종합	2,955	3,017	2.1
홍콩 항셱	16,546	18,135	9.6

자료 : Bloomberg.  
주 : 평균 기준.

⑤ 종합평가

○ 국내 소비 여건 중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투자와 부채 및 물가 등 부정적인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국내 소비 여건 중 소득, 금리, 금융자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 국내 소비 여건 중 고용과 부동산자산은 중립으로 판단
- 단, 건설 및 설비투자, 부채, 물가와 같은 부문은 부정적인 소비 여건으로 판단됨

< 국내 소비 여건 종합평가 >

구분		종합평가	
		주요 내용	평가
① 투자와 고용	건설투자	건설기성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수주도 부진해 건설투자 전반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부정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동행 및 선행지표(국내기계수주) 모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개선 기대감도 약함	부정
	고용	실업률과 고용률 등 전반적인 여건은 양호하나, 취업자 증가 규모 축소와 주력 소비층의 일자리 축소 등 소비 확대 효과 기대감은 크지 않음	중립
② 소득과 부채	소득	가계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소득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	긍정
	부채	이자비용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도 재확대되면서 향후 고수준의 상환 부담 유지 가능성이 큼	부정
③ 물가와 금리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이는 한편,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	부정
	금리	통화 긴축기조 하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가 장기화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 본격화 기대	긍정
④ 자산효과	부동산 자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자산의 가치 상승이 전망	중립
	금융자산	올해 금융자산 중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기대	긍정

### 3. 시사점

- 현재 국내 소비 여건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상존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소비 부진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하반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첫째,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확보함으로써 경제 주체의 기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통화정책은 미국 대선 향방과 연준(Fed)의 정책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경기 여건 급변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통화정책 여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함
  - 한편, 국내 금융시장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금리 및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수급 시나리오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외 환경 급변 또는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 모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예방책과 더불어 설비투자 촉진 유인 확충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 해외 투자 유입을 가속시키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 건설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예방책을 마련하는 한편 PF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건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일치 예방을 위한 규제 완화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버블 재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책 확충 및 관련 규제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완화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한편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을 촉진해야 함
  - 기업 투자 관련 규제 합리화 노력 강화, 금융세계 등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충, 친기업 정서 확산 등 기업인 사기 진작을 통한 투자 의욕 증대,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과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셋째, 가격지표의 안정화 등을 통한 실질 구매력 확충은 물론 소득과 부채의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민간소비가 하반기 경기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장금리의 안정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부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현상을 완화해 나가야 함
- 물가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나 계절성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 관세 조정 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소득 재분배 기능의 효율성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불공정 상거래 예방, 관광 상품 개발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소비를 국내로 환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함

넷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 등을 통해 부(負)의 자산효과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건전한 기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HRI**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구 원 (2072-6248, syroh@hri.co.kr)